STATE OF NEW YORK | EXECUTIVE CHAMBER

ANDREW M. CUOMO | GOVERNOR

즉시 배포용: 2013년 7월 23일

CUOMO 주지사, 동성 커플 유자격 배우자도 유산세 환급을 받을 수 있다고 발표

미국 대법원의 판결은 뉴욕주 납세자들이 이전에 제출한 유산세 신고서를 수정함으로써 환급을 받을 자격이 있을 수 있음을 의미

Andrew M. Cuomo 지사는 오늘 동성 커플의 유자격 배우자도 유산세 환급을 받을 수 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환급은 *미국 정부 대 Windsor*에서 미국 대법원의 최근 판결의 결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이 결혼보호법(DOMA) 제3조가 비헌법적이라고 판결한 것입니다. 이 변경의 영향을 받는 납세자들은 뉴욕주 납세자정보센터 518-457-5387번으로 연락해야 합니다.

"DOMA를 철폐하려는 대법원 판결은 획기적 민권 승리로서 LGBT 커뮤니티를 법률에 의거한 진정한 의미의 평등권에 더 가까이 다가서게 하였습니다"라고 Cuomo 지사는 말했습니다. "그 판결의 결과로 뉴욕주는 이제 그들의 성적 취향 이유 때문만으로 세금 납부가 요구되었던 유자격 동성 배우자에게 환급 수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이 재정적 보상은 Edie Windsor 그리고 깊은 개인적 상실의 시기에 유사한 무관심에 직면한 모든 남녀들의 정의를 위한 일보 전진입니다."

그 DOMA 사건에서 뉴요커인 Edie Windsor는 그녀의 배우자 Thea Spyer가 2009년에 사망한 후 납부한 연방 유산세 363,000 달러에 대한 환급 요구를 국세청이 거부하자 연방 정부를 제소하였습니다. 그녀는 또한 뉴욕주 세무부에 뉴욕주로부터의 유사한 유산세 환급을 요구하는 보호 클레임을 제기하였습니다.

"저는 Cuomo 지사께 감사 드립니다. 지사님은 결혼할 자유를 위한 투쟁에서 진정한 영웅입니다"라고 Edie Windsor는 말했습니다. "저는 애당초 납부해서는 안 되었던 유산세의 환급을 받게 되어 당연히 흥분됩니다. 그러나 저를 더욱 행복하게 하는 것은 다른 동성애자가 다시 DOMA의 치욕에 직면할 필요가 없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Cuomo 지사님은 모든 이를 위한 평등이라는 그의 약속을 다시 한번 지켰습니다."

뉴욕주는 2011년 6월에 혼인평등법의 통과로 혼인 평등을 달성한 최대 주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한 달 후에 세무부가 뉴욕주 유산세 목적상 혼인평등법이 2011년 7월 24일 이후에 사망한 고인의 유산에 대해서도 발효된다고 규정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대법원의 판결이 주어졌기 때문에 이 취급은 이제 7월 24일 *이전에* 사망한 동성 배우자와 결혼한 개인들의 유산에도 적용됩니다.

Korean

“이제, 대법원 판결의 영향을 받는 납세자들은 환급 신청 제한 법령이 미결인 경우 이전에 제출한 유산세 환급서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라고 세무재정부장 Thomas H. Mattox가 말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유산세 초과납부의 크레딧 즉 환급 클레임은 납세자가 애초 신고서 제출일로부터 3년 또는 납세일로부터 2년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주정부는 세법의 프라이버시 조항을 인용하면서 유산세 환급의 달러 액수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추가 정보는 동성 커플의 유산에 대한 세무부의 각서에 있습니다.

###

다음 웹사이트에 가시면 더 많은 뉴스를 보실 수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